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지: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모든 것 한데 합쳐 돌아가니 '청정'

15면에서 계속

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도 없이, 나의 욕망도 관계가 없어요?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까? 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매사를 다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니 그렇게 놓으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리저리 주인공과 내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중이 산다고만 한다면 주인공의 지혜가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일체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바로 힘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걸 반 이상경에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라고 한 겁니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일이 작용하는 것이 전부 그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작용이 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생겨났으므로 나로부터 알아야 된다. 나부터 믿어야 된다. 나부터 발견해야 된다. 발견했으면 그 작용이 바로 나한테서 나오는 거고, 그 작용이 나한테서 나온다면 일체가 다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다. 이 몸중이 주인공의 사자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미치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인 나의 주인을 믿고, 주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 아닙니까? 주인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근본과 돌 아나기 자문자답 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신다면 외롭지도 않고 일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더 지혜롭고 공부하게, 나와 남이 다 좋도록 이끌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놓으세요. 개별적인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본과는 멀어집니다.

### 참되게 자리타로 사는 방법

**문**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있으면 모든 것이 구름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듯 알듯 하다가도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참되게 살고 남도 위하고 남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굳세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지의 체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답**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지만 가정이 있고 가정 속에서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구나 하고 그 조지 속으로 가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모두를 위하여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길을 알려 주십시오.

**문**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의 생명들도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제자들이 "나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토굴을 짓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너 그러면 땅도 짚지 말고 웃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토굴을 짓더라도 나무로 지어야 하는데 왜 남의 것을 꺾어가다 지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에 홀연히 깨우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주고 받고 하

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공기를 좋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또 나무들이 먹게끔 내보내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체 중생들의 눈물이 강으로 모이고, 또 구정물·핏물·고름물·깨끗한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것을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내 어찌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정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지 않으면 한 곳에서 들고 나는 그 청정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도 모르니까요."

내 한마음이 안으로 뭉쳐 중생들을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하합니다.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야지 품종으로 생각으로 쫓아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오는 것대로 마다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재료로 삼는다면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까닭

**문** 화면으로나마 스님의 모습을 가끔 보는 불자입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됩니다. 언제쯤이면 이 책 저 책 뒤지지 않고도 부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님, 부처님께 공양을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기를, 꽃 공양, 대중 공양에 대해서도 저는 다기를 깨끗한 마음, 대중공양은 자식,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깊은 답 주시면 마음 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답** 꽃은 사람의 마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나쁜마음이 아니라, 우주만상이 서로 전달을 하고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아름다움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꽃 공양이라고 합니다.

향 공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을 잘하는 것이 우주법계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필연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향을 피우게 되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도 할 수 없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석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의 향을 피울 줄 알아야 공양이 되죠. 마음의 향을 못 피운다면 그냥 물질적인 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米) 공양은 우주 삼라만상 대천체제 만물만성이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찰나 전달을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공생·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혼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혼자 먹습니까. 혼자 먹어도 혼자 먹은 사이가 없지요. 내 몸 속에도 생명체가 수 십억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먹었다 덜 먹었다 할 것도 없이 더불어 함께 하는 공양이죠.

그리고 청수를 올리는데, 물을 올리는 건 사람의 마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공양입니다. 우리 몸중이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든, 꽃을 꽂든, 일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바로 공행이 되는 거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추현

##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작업이 바로 힘이 없이 하는 도리죠

## 과거 현재 한생각에 바꿀 수 있어

### 동호회 방에 이상한 글 올라와

**문** 저는 인연이라는 불교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상한 사람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유 인즉슨, 그 사람은 자기의 견해가 아닌 사생활을 밝히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범우님들은 모두들 가식적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범우님들은 그분께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해주면서 각성을 요구하지만 모두들 가식만을 내놓고 있고 자기와 진검승부를 하지 않는다면 비웃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고, 범우님들은 모두들 어리석은 중생들쯤으로 취급하더군요. 그 분 때문에 기분 좋게 들어온 범우님들의 맘이 더욱 실망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답**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죠. 흐르는 물을 보죠. 또 그게 얼고 파도를 치다가 잔잔해지죠. 또 바람이 불면 온통 나무가 흔들리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저서 떨어지죠. 사계절을 볼 때 말입니다.

잔잔한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면서 잔잔해집니다.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아주 신랄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요, 낙엽이 저서 가을에 푹푹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퍼지고 날이 추우면 아주 쓸쓸해지죠.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고도 그것이 그대로 철칙인 것이죠.

그런데 자 나무들은 모두 나같이 살아가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냥 쫓아가면 안 되죠. 그게 좋으면 그것대로, 또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느냐? 그 눈 가지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가는 것 일부를 쫓아가서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고, 하다 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꺽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기가 온다 하더라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음의 실천을 해보

지 않으면 이 도리를 남들처럼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든지 걸림이 없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뭇 때문에 간다. 온다 아담법칙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전체를 다 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엄마가 가르칠때 짜증이 나오

**문**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답답할 정도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특히 수학 공부시에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엄마가 짜증스러워 제가 고집을 부리면 당면히 엄마도 큰소리가 나지요. 저는 공부 하면서 운 적이 많아요.

르스님,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혼내고 있다. 주인공에게 관했는데 안되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엄마나 저도 좋을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고, 엄마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답**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어, 내가 꾸지람을 듣게 되고, 엄마의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만 너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게 돼. 그렇게 '내가 해야지' '내가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도 한다는 말인데 그러다 결과 생각만큼 좋게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실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절부절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뿌리이며 친구인 주인공 자리에다 모두 맡겨, '주인공, 당신만이 물리(物理)가 터지게 해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말겨.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너의 영원한 친구인 주인공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너의 고민을 다 맡겨놓고 편안히 쉬 수 있도록 해.

### 과거의 업 지우고 싶어요

**문** 현대불교신문의 한생각을 읽어 보니 르스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과거에 살았던 자기 이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현재에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살 때에 그 빨간 줄 쳐진 것을 빼와야 됩니다. 지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내 잘못을 지워 현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나요?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답** 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이니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주인공 자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라는 걸 믿고 진실하게 구해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괴롭다 하면 괴롭지 않는 것이 따로 망상이다 하면 망상 아닌 것이 따로 불온, 수박을 놓고서 쪼개서 먹지 않고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봐도 도무지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듯이 말입니다.

늘 종각지 얘기를 합니다만, 종씨를 심어서 콩나무로 화했는데도 과거의 종씨를 찾는다면, 그래서 과거의 종씨와 현실의 콩나무가 돌이 아닌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구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면서 씨를 찾으려고 하시는 안됩니다. 그 모든 게 한 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 있으

니 그 한생각 한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극하게 믿고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의식을 모두 조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다 미래다 현재를 떠나서 '지금의 한생각 속에서 자유를 얻어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 보세요. 그래야 한생각에 과거도 지우고 현재도 바꿀 수 있는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무엇이든 벗어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 빛을 봤는데 흔적이 없으니...

**문** 스님, 저는 꽤 오래 전에 삐꾸기 소리를 듣다가 문득 제 발 밑에서부터 빛이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빛이 눈앞까지 차는 순간 '아니, 이런 일이?' 하는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빛이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려버렸고, 눈을 떠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밝아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 속에서 생각 하나가 문득 끊어지면서 아래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오더니 제 이마에서 터지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느낌은 생시도 꿈도 아니라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없지만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믿기가 너무 두렵고 주위에 물어보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 혼자 속으로 공공 공공 공공으로 르스님께 여쭙어 봅니다. 제 판에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보지만 더 이상은 나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저는 분명히 봤는데 흔적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답**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고,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용을 나를 누가 형성시켰을까요. 바로 자기란 놀이 형성을 시켰습니다. 자기란 놀이 형성시켰으니까, 형성시킨 그 놀이 바로 부(父)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고, 그래서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돌이 아닌 깨달음, 나무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형성시킨 자기는 그냥 거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뱀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 데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주고 있는 것도 전자의 내가 나오기 이전 부가 지금 현재의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바깥으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빛이나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근본 사이에 막 아닌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조금 뜯어서 그렇게 보여 준 거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놓고 다시 정진을 해야 막이랑 그 자체마저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트인 걸 볼 줄 알고 있다면 트인 그 자리가 다시 감금해져요. 내가 봤다, 내가 이만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공부를 해 나가다 조금 보았다 할지라도 아는 건 알고 놓고 터득을 하는 건 터득을 하는 대로 봐야 합니다. 터득은 했을망정 깨달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모두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는 좀더 조금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느꼈다'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터득을 했다' 이런 말로 쓰시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부처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냥 집어삼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진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가짜로 인위를 뱉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1 288쪽  
값 6,000원  
이시자